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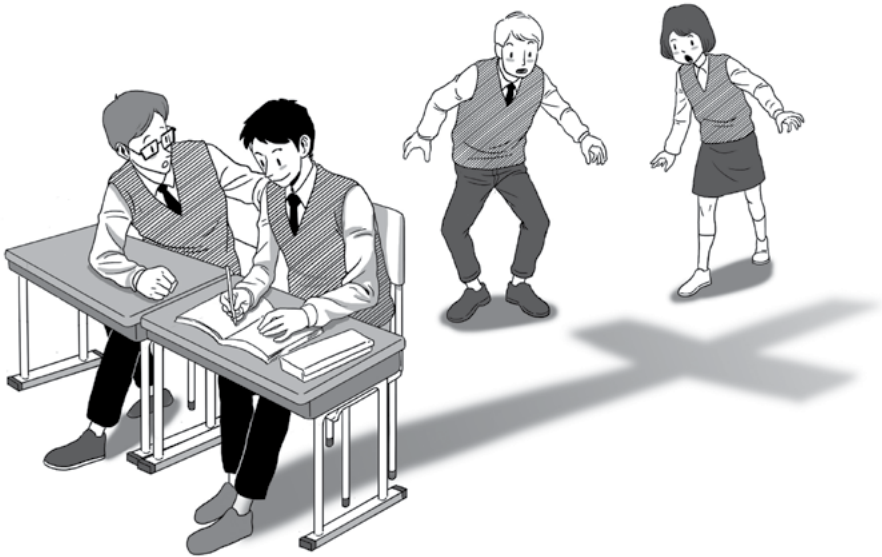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

고전 7:17~24, 고전 10:31~33

은혜찬송 71장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 67장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1. 그리스도인 학생으로서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함을 압니다.
2. 공부를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압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1)

그 주인이 이르되 잘 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 (마 25:21)



을 마음판에 새기기 (암송)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잠 22:29)

Do you see a man who excels in his work? He will stand before kings; He will not stand before unknown men. (Pr 22:29)

- ① 말씀에서 핵심이 되는 단어나 문장에 밑줄을 그어 봅시다.
- ② 자신의 가족 구성원(아버지, 어머니, 형제 등)들에게 각자 “자기사업”은 무엇인지 적어 봅시다. 또 “자기사업”에 성실한 사람이 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설명해 봅시다.



에 맞게 내 생각 바꾸기

- ① 우리는 학교에서 많은 과목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학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 무엇이라고 하셨나요? 잠언 1장 7절 말씀을 읽고 적어봅시다.

2

우리는 모두 학생이지만 학습능력에 대한 달란트는 모두 다릅니다. 마 25:14~30의 “달란트의 비유”를 읽고 다음에 답해 봅시다.

①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자는 장사하여 각각 몇 배를 남겼나요?

②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남긴 자에게 주인이 한 칭찬을 비교해 봅시다(마 25:21, 23).

③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그 선택의 결과 주인은 어떤 처분을 내렸나요(마 25:24~30)?

3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달란트(재능)가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이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고 구체적으로 적어봅시다.

① 나의 달란트는 무엇일까요?

-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달란트는?

- 주변에서 바라보는 나의 달란트는?

② 내가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미래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적어 봅시다.



을 삶에 적용하기

오늘의 말씀

(말씀 쓰기)

오늘의 기도

(감사 / 회개 / 간구)

일

잠 1:7

우

잠 16:9

화

잠 19:21

수

전 9:10

목

단 1:17

금

호 6:3

토

고전 10:31



누가 먼저 그만두려 했느냐

사소한 일로 남매가 다투는 모습을 지켜 보던 어머니가 다가 왔습니다. 엄마를 보자 누이동생이 소리쳤습니다.

“오빠가 먼저 시작했어요.” 오빠도 지지 않고 외쳤습니다.

“아니예요, 애가 먼저 싸움을 걸었어요.”

어머니는 두 아이의 말을 듣고 나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알고 싶지 않아. 단지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누가 먼저 그만두려 했느냐, 누가 먼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려 했느냐야.”

"완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불지어다 화평한 자의 결국은 평안이로다" (시 37:37)



질문 있어요~



학생의 신분에서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장차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진로문제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져야 신앙생활을 하는데 좋을까요?

그리스도인 학생의 진로 선택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진로선택의 방향은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좀 더 편리한 직업, 금전적으로 이익이 큰 직업쪽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가치관과 목적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가치관과 삶의 목적에 변화가 없다면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진로와 직업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고후 5장 15절과 엡 2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함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죄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는 목적이 확실해졌다면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자신의 능력, 지식, 건강, 환경, 경제적인 여건, 기술적인 면, 자기 적성 등에 따라 결정하면 됩니다. 단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은니라" (잠 16:8)라는 말씀처럼 적게 벌더라도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록 병들어 누워있을지라도 남편은 자기 아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 약값을 충당하기를 원치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것을 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직업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점점 세상으로 가까워지게 하고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라면 함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 보다는 신앙생활에 주는 유익을 먼저 고려하여 가장 효과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직업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